



[삼성 vs LG] 갈고닦은 '가전 신기술' CES서 진검승부 03



Economy

코스피	2466.46 (-19.89)	코스닥	808.01 (-14.30)
금리 (미국 3년)	2.14 (+0.02)	환율 (원/달러)	1062.20 (-2.30) (4일)

애플 이어 인텔도 결함 은폐... 美 IT '도덕성' 논란

CPU 성능 30% 저하로 주가 급락하는 와중에 CEO는 지분매각 나서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왼쪽)와 애플 CEO 팀 쿡. /각사

애플에 이어 인텔에서도 제품 결함 등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미국 IT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 각 회사 CEO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챙겨 미국 업계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5면)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CPU 결함 문제가 드러나며 인텔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상당수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매체 레저 가제트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보유하고 있던 인텔 주식 88만9878주를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인텔 내규에 따라 CEO가 보유해야 하는 주식 25만주를 제외한 지분 전량을 매각한 셈이다. 총 환산금액은 3932만 달러(약 420억원)에 달한다.

인텔의 2인자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다가 지난해 중순 인텔은 떠난 스테이시 스미스도 지난해 10월 30일 인텔 주식 47만 2337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465달러(약 223억원) 어치다. 지난 석 달 동안 인텔 직원들이 처분한 인텔 주식은 148만 7504주(약 702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내부정보로 이번 CPU 결함 이슈를 확인하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생산된 인텔 CPU의 하드웨어단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경우 PC 성능이 3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인텔 주가는 3.4% 급락했다.

그간 인텔은 세계 PC 시장의 93%를 점유하며 승승장구했다. 때문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소홀한 모습도 보여왔다. 2013년 인텔의 6대 CEO로 취임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PC 시장이 둔화되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사업 실패와 PC 시장 둔화가 겹치자 실적 부진을 우려한 크르자니크는 2016년 전체 인력의 11%를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만 2000명이 해고된 이 구조조정의 대상자는 대부분 PC, R&D 부문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텔 CPU는 기술적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전까지 제조공정 미세화와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 CPU 세대를 구분했지만 이제는 약간의 개선을 가하거나 작동 클럭을 올리고 코어 수를 늘리는 등 부분적인 성능 향상에 그치는 수준이다.

14나노미터(nm) 공정을 적용한 6세대 CPU에 이어 출시된 7세대는 14nm 공정을 안정화시킨 14nm ++ 공정을 적용하고 작동 클럭을 200~300MHz 향상시키는데 그쳤다. 8세대는 물리 코어 수를 늘려 성능을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인텔 CEO를 포함한 주주 이윤을 위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해고된 탓에 결함 개선과 기술혁신에 실패한 셈이다.

인텔에 앞서 배터리 게이트 파문을 겪고 있는 애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을 이유로 사용자 동의 없이 구형 아이폰에 대한 성능 저하 패치를 적용해 비판을 샀다. 이에 애플은 해당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터리를 할인가에 교체해주겠다는 보상을 내놨지만, 보상안이

아닌 배터리 판매 프로모션이라는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IHS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6 배터리 교체 비용은 3.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무어인사이드의 패트릭 무어헤드 애널리스트도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 원가는 10달러도 안 된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에 말했다. USA투데이는 이를 인용해 "배터리 교체비용이 팀 쿡을 비롯한 애플 경영진의 연봉보다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2016년 875만 달러(약 93억원), 2017년 1280만 달러(약 137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했다. IHS에 따르면 2016년 애플은 아이폰6S 6200만대, 아이폰7 5000만대, 아이폰7 플러스 2500만대, 아이폰6S 플러스 2400만대 등 1억6000만대 정도의 아이폰을 판매했다. 이번 배터리 교체 대상 수량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경영진이 과도한 연봉을 챙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심상치 않은 원화 초강세 환율 1050원까지 밀리나

연초부터 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연일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더니 1070원 아래로 내려갔다.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 선도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원 내린(원화값 상승) 1062.2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 1200원선에서 연말 1070원선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첫날을 1208.0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날 1070.5원으로 마감했는데 각각 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1061.2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 30일 1055.5원을 찍은 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원화 가치 상승은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개

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졌고, 이는 달러화의 약세 움직임을 부추겼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각종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던 대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하면 대내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빠르다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원화 강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환율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수급이라든지 시장을 존중하되 과도한 수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대처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 3년 내 '무결점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美 오로라와 동맹 구축 'CES 2018' 기간 中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Aurora)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이번 협업에 이어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런 내용의 '현대차 그룹-오로라' 프로젝트를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소비자가전전시회) 2018'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발표 현장에는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연구개발총괄)과 크리스 엄슨 오로라 최고경영자



현대차 오로라 협업에 우선 활용 차세대 수소전기차. /현대자동차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오로라는 구글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 오토파일럿 총괄 스티븐 앤더슨,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 드류 배그넬 등 세계적 자율주행 기술 선구자들이 모여 창립한 기업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각종 센서·제어기, 클라우드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는 백엔드(Back-End) 솔루션

등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협업을 통해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로라와 동맹으로 '무결점의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조기 출시해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3년 안에 업계가 이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

로 잡았다.

이를 위해 양사는 2021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4'(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수준의 자율주행을 '스마트시티'에서 실현하고, 이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를 실제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레벨 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깝다.

이런 목표를 위해 양사는 조만간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최적의 스마트시티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대도시 전체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도입된 곳으로, 스마트시티 내 모든 도로에는 차와 도로가 서로 통신하는 V2X(자동차와 사물간의 연결) 인프라가 구축된다.

(8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만나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 필요 재정-통화 당국 공조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경제의)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정-통화 당국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올 한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많다"며 김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조찬 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3%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